

# 5·18,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지역 현안사업 힘 받는다

이낙연 대표 민주당 새 지도부  
광주·전남 정치인 대거 포진  
1일 개최 정기국회  
법안 처리 가능성 커져  
국비예산 확보도 청신호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송갑석(광주 서구 갑)·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등 2명만이 민주당 안팎에서 활동했고,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원외 최고위원을 지낸 것에 비하면 21대 국회 들어 이 지역의 입지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전남 18개 지역구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포진, 당 지도부의 이 지역 의원들과 시너지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현안 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5·18역사왜곡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진상규명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5·18 역사 왜곡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망월 모역에서 '무류 사과'를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5·18 관련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 중심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광주·전남지역 국비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여파 탓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호남 인맥 포진은 반길만한 일이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예산 확보에 앞장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갑석 광주시장 위원장은 "5·18 관련법 안 등 지역 현안 법안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낙연 당대표는 과거 전남지사를 역임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업과 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며 이에 지역 의원들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2차 재난지원금 추석전 선별 지급 속도전

"4차 추가경정예산 불가피"  
투입예산 5조 대10조 이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추석 전 지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1조~12조원으로 규모까지 거론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남 여의도에서 신임 최고위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며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2일째 당정 협의회를 열어 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을 신속히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추경 검토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실물경제 타격 우려를 고려한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해졌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1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약 1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규모에 견줘,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급 대상은 전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당내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중

심으로 '전국민 대상'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취약 계층 우선 지급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 대표가 취임 후 관련 발언이 잦아든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날 31일 광주일보와 단독인터뷰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부는 빛을 내서라도 도와야 한다"며 "전국민에 지급하기 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투입해 보호하는 것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며 "다만 규모에 있어 5조 원대를 생각하고 있는 정부와 10조 원대 투입이 필요하다는 당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전국 지자체장,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vs 선별지급 의견 팽팽

226명 설문...50% 대 49%  
개인별 지급시 20~30만원  
가구당 지급시 100만원 적절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지, 취약계층·하위계층에게 긴급복지 차원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28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응답자 180명)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한 결과, 기초단체장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보편지급이나, 선별지급이냐를 놓고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50%)과 중하위 계층에 한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48.9%)는 의견이 거의 비슷했다. 또 개인별 지급(48.3%)이나, 가구 단위 지급(50.6%)이라는 방법론을 두고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개인별 지급 시 1인당 적정 지급액은 20만원(36.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원(30.3%), 40만원(9.0%), 50만원(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4인 기준)로 지급할 때는 100만원이 적

절하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17.6%), 40만원(5.5%), 30만원(3.3%)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금 지급(16.1%)보다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91.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7.8%)보다 많았다.

한편, 국민 응답자의 71.3%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47.6%)이 경제 수준별로 중하위 가구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4.8%)보다 2.8% 포인트 많았다. /연합뉴스

## 이용섭 광주시장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국회에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회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정기국회 개최에 맞춰는 평을 내고 "빈사 상태에 빠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추석 전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서둘러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집중 호우, 경기침체

로 살기가 팍팍할 때 출범하는 국회라서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목소리가 없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시장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며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군 공항 이

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 한전 공대의 차질 없는 개교 등 현안 협조도 요청했다. 이어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이 허투루리 제정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며 "국립 5·18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